

대행 스님

이 핵심적인 나라는 것부터 돌아다볼 줄 알아야 한다

질문자1(남) 큰스님께서는 불법의 공부 과정을 삼 단계로 가르쳐 주셨는데 첫째는 참나의 발견, 즉 자아의 발견과 완성, 둘째는 모두와 하나가 되는 것, 즉 전체 속에 자기가 있음을, 셋째는 이런 수행을 거쳐 보살도를 완성해야 하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둔한 저희들은 평소 큰스님의 법문을 통하여 여러 번 가르침을 받아 왔지만 아직까지 미혹한 가운데 있습니다. 차제에 이 삼 단계의 공부 과정에 대하여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큰스님 여러분한테 항상 말씀드리곤 했는데 그게 그렇게 얼른 와닿지 않나 봐요. 닿는 분들도 계시고 안 닿는 분들도 계시겠지요. 그것을 이름해서 '삼정지각 불이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난 그냥 나오는 대로 하는 것이니 잘 참작해서 들으세요. 육위법도 있고, 팔정법도 있고, 십이지법도 있고 그렇지만 그것을 전부 떠나서, 그것을 떠나는 게 아니라 한마음에다 모두 넣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작업을 시키기를 이렇게 했죠. 처음에 일차적으로도 죽어야 나를 볼 수가 있고, 이차도 죽어야 나와 더불어 둘이 아님을 알고, 셋째도 죽어야 나하고 둘이 아닌, 바로 나툼을 알 수 있어서 구경경지를 이룬다. 그것도 이름해서 말입니다. 그럴 때 자유인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항상 여러분한테 그랬죠? 내가 나왔기 때문에 상대가 있고 또 상대가 있기 때문에 일체 만법이 바로 나로 인해서 돌아간다고요. 그래서 나로 인해서 벌어진 거니까 나를 다스리면서, 바깥의 경계도 내면에 놓고 내면의 경계도 바로 그 안에 놔라, 이렇게 모든 작업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그렇게 하지 말고 "처음에는 무조건 용광로에다 헌쇠 넣듯 놓아라. 나를 이끌고 가고 일체 만법이 들고 나는 곳은 거기니까 모든 것은 거기서 하게끔 하고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거기 놔라." 하는 것을 말했습니다.

그럼으로써 나를 발견해서 보는 단계가 되고, 나를 보는 단계에서는 둘이 아닌 도리를 알기 위해서 바로 거기에 또 놓고 가되, 안에서 어떠한 뜻이 오더라도, 무엇을 시키는 일이 있더라도 할 거는 하되 거기에서 하라는 대로 맹종하지는 말라고 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나를 발견한 뒤에 나를 넓혀서 생사윤회에도 끄달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것도 시키고 저것도 시키고,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 하고 주장하는 그런 안의 경계가 있습니다. 안의 경계가 있는데 거기에 맹종하지 말고 누가 되지 않는 일은 듣고 누가 되는 일은 듣지 말고 버려라. 아니, 버린다기보다 듣지 말고, 하여튼 나를 테스트해 보려고 그러는 거니까 '감사하구나' 하고 생각해서 거기 또 놔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안의 경계에 맹종하고 거기서 시키는 대로 한다면 안으로 기울어지고, 밖에서 끄달리고 또 밖으로 떨어진다면 밖의 경계에 기울어지는 것이니까 안으로나 밖으로나 맹종하지 말고, 모든 이치를 눈으로 보고 듣고 모든 것을 내가 주장해서 결정을 짓는데, 그 양면은 다 거기에 총괄이 돼서 그대로 법이 된다는 얘깁니다. 그래야만이 모든 경계나 망상이나 이런 것에 끄달리지 않고, 그대로 생각하면서도 걸림이 없이 그대로 자기가 주장자를 올바로 세우고 이끌어 나가는 공부라고 보겠습니다.

셋째 번에는 둘이 아닌 까닭을 알았기 때문에 둘이 아닌 나툼을 나툰다고 했습니다. 그 나툼이라는 것은 열반계를 말하죠. 즉 말하자면 '열반각지', '구경각지'를 말한다 이겁니다. 그런데 구경각지는 어떠한 것이 구경각지냐. 여러분 이름이 많으시죠? 남편이라는 이름도 있고, 사위라는 이름도 있고, 아버지라는 이름도 있고, 또는 아들이라는 이름도 있고, 형님이라는 이름도 있고, 아우라는 이름도 있고, 할아버지라는 이름도 있고, 여러 가지 이름이 많습니다. 사회에 나가면 또 회사의 일원으로서의 이름이 있을 거고, 상황에 따라 여러 가지 이름이 붙어서, 예를 들어 아들과 만나면 아버지의 생각과 행과 말이 아주 선연하게 선명하게 나갈 수 있도록 되죠?

그와 마찬가지로 부처님의 뜻도, '모든 게 내가 없고 남이 없다' 하는 것은 일체가 나 아님이 없고, 일체가 내 도량 아님이 없고, 일체가 내 아픔 아님이 없고, 부처 아님이 없고 중생 아님이 없이 모두가 한자리를 하기 때문입니다. "부처도 없는 것이 부처다."라고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부처님께서는 그릇 따라서, 예를 들어 종지에 응해 달라면 종지가 돼 버리고 사발에 응해 달라면 사발이 돼 버리십니다.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달마 대사가 구렁이가 됐다가 금방 달마 대사가 됐던 겁니다. 그처럼 나도 그런 경험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런 말을 그대로 할 수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병원에서는 아무 병도 없다는데 나는 죽겠습니다." 또 "병원에서 몇 달 못 산다고 합니다." 또는 "어디가 아픈데, 몸져눕지도 않고 이렇게 아픕니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고, 또 부처님의 뜻을 알지도 못하고 그냥 바깥으로 끄달리며 다니는 분들, 이런 분들이 천차만별로, 그릇대로 주어지듯이 그렇게 많죠. 그럼 사생의 그 인연 된 것을 볼 때 인간 사회만 있는 게 아닙니다. 천체가 바로 한데 합쳐진 게 일체 생명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다면 만약에 구렁이가 '나를 구원해 주시오' 할 때 어떻게 하느냐. 부처님의 마음이 구렁이 속으로 들어가서, 예를 들어서 모든 문을 활짝 여시고선 그거를 안아들인다면 두드러지지도 않으면서 자기 모습이 바로 그게 돼 버려요. 구렁이가 돼 버리죠. 이 사람이 건져 달라고 할 땐 이 사람 속으로 들어가고, 저 사람이 건져 달라고 할 땐 저 사람이 되고, 또 돼지가 살려 달라고 할 땐 돼지 속으로 들어갔다가, 소 속으로 들어갔다 말 속으로 들어갔다 또 하다못해 풀 속으로도 들어갔다, 나무 속으로도 들어갔다 목신도 되고, 구더기 속으로 들어가서 구더기도 되고 이러니 어떤 거 될 때에 나라고 할 수 없는 것이 부처다 이겁니다. 그게 바로 '열반구경지', '구경지각'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것도 이름해서 말입니다.

그러면 삼계를 통달했다 이 얘깁니다, 삼계를. 나의 삼심을 통달해서 삼계를 통달했다. 과거심이나 현재심, 미래심을 다 통달해서 과거 세계, 현재 세계, 미래 세계를 다 통달했다. 그래서 자유자재한다. 그래서 어느 사람 될 때 나라고 할 수 없고, 어느 벌레 될 때 나라고 할 수 없고, 어느 목신 될 때 나라고 할 수 없고, 어느 지신 될 때에 나라고 할 수 없고, 어느 용신 될 때에 나라고 할 수 없다. 일체의 만물만생 어떠한 것이든 그 가지각색으로 헤아릴 수 없이 내가 됐다가 또 이게 됐다가, 화해서 이렇게 돌아가는데 어떤 거 됐을 때에 나라고 할 수 있겠느냐. 나라고 할 수 없는

☞ 20면으로 계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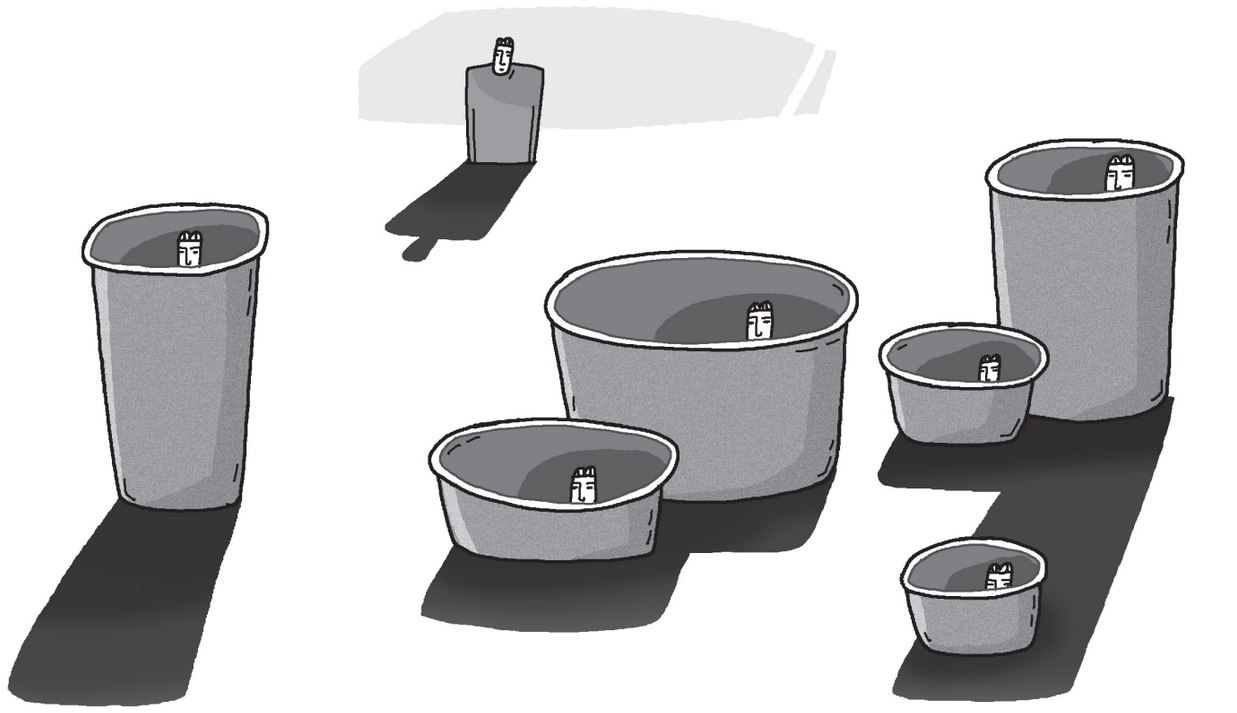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정가 ~~14,000~~원 → 특판가 12,600원 / 신국판 / 314쪽 (배송비 별도)

삶의 고해(苦海)를 건너가는 지혜의 가르침

세상 모든 생명들에게
바치는 대행스님의
생활속 불법이야기

삶은 苦고가 아니다(개정판)

"살아있는 탑에는
개개인의 살림살이와
보이지 않는 곳의 마음이
같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탑은, 거꾸로 세워놓아도 바로 세워놓아도
모로 세워놓아도 뒤집어서 세워놓아도
세상을 모두 하나로 돌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2009년 4월 9일, 책 표지에 탑을 형상화하여 넣으라시며
탑의 의미에 대하여 말씀하신 대행 스님의 법문입니다.

대행스님 법어집 '삶은 苦가 아니다' 오디오북 출시

대행스님의 법어집인 '삶은 고가 아니다'를 오디오북으로 제작하였습니다.
전문 성우의 목소리가 아니라 대행스님의 가르침을 따라 마음공부 하는
이들이 수개월간의 정성과 노력을 담아 완성한 이 오디오북을 통해
불교를 더욱 편안한 마음으로 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 오디오북 소개 |

제1장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고 있는가
• 내가 누구인지 모른대서야 00:03:13
• 누구나 부처 될 자격이 있으니 00:33:47
• 통하는 길은 오직 마음뿐 00:51:17
• 마음의 안테나를 세워라 1:26:20

제2장 누구에게나 똑같이 부여된 능력
• 생명의 에너지와 주인공 01:37:30
• 자신의 뿌리를 굳게 믿고 01:54:07

제3장 다 놓고 얻는 도리
• 놓고 가는 생활선 02:11:58
• 고정관념부터 깨라 03:03:44
• 삶은 고가 아니다 03:36:59

제4장 서로 돕고 사는 세계
• 공생 공용의 이치 04:23:15
• 생활 속의 마음 도리 05:00:41

제5장 가르침의 바른 이해
• 마음 밖에는 부처가 없다 05:43:54
• 불법의 바른 이해 06:05:10
• 실참 수행 06:49:56

제6장 고에서 벗어나는 길이 있으니
• 고에서 벗어나는 길이 있으니 07:23:00

『삶은 고苦가 아니다』는 1996년 9월에 처음 발행되어 초판 22쇄라는 기록을 남기고 스테디셀러로 자리매김한 대행스님 법어집 입니다.
2015년의 3판 개정판에 이어 2022년 4월에 개정 제4판을 내놓으며 읽기에 좀 더 편하도록 글자 크기를 키우고 잘못된 부분들을 수정하여 페이지 수를 추가하였습니다.

주문은 마하몰! 02)732-1520 인터넷 주문 : www.mahamall.co.kr 신한은행 100-036-429749 (예금주 : 현대불교신문사) ※ 전국 대형서점 및 인터넷 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